

비상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개시

# 홍보 활동 강화에서 공정위 제소까지

1만 자영제과점의 뜻을 모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한 달 동안 바쁜 행보를 보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를 제소할 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글\_정술이 기자**

10월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구체화되면서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드높인 한달이었다. 지난 6월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 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로 9월까지 비대위 사무국 조직과 정보 수집, 투쟁자금 모금활동 등 기반 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 23일 비대위 소식지 발간을 시발점으로 점차 비대위 활동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 대내외적 홍보활동 강화로 기반 구축

비대위의 이름으로 처음 발간된 소식지는 비대위 활동일지를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이르기까지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비대위 사무국은 이

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관련 Q&A에서 제휴카드 폐지 성공 가능성을 '51%'라고 언급했다. "정확하게 몇 %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51%의 가능성은 분명 성공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또 "가능성이 높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1만 자영제과점들의 단합과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라며 제과인들의 관심과 단합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제휴카드의 시장 경쟁을 왜곡,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비용 및 제휴 프랜차이즈 업체의 비용 부담 증대 등 제휴카드 폐지에 유리한 분위기가 전개되는 점을 놓치지 않고 반(反) 제휴카드의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1만 자영제과점의 목소리를 담은 비대위 소식지는 전국 지회·지부와 고문단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 각 언론사에 발송됐다.

모든 제과인들과 제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이하 Siba)를 통해 비대위는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영제과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8명의 공동위원장이 전원 출석하고 비대위 사무국 직원들이 총출동했다. 자체 제작한 소식지와 전단지지를 배포하고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제과인들은 물론 Siba를 방문한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제휴카드 폐지에 절실히 동참하는 제과업주들은 지인들을 데려와 서명에 동참시키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Siba 현장에서만 700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제과점 경영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과 제휴카드 폐지 관련 활동을 몰랐던 제과인들의 관심도 높아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고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이동통신 사용 요금은 인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비대위의 홍보 부스가



### ●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 설문조사 ●

####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정책이 자영제과점의 경영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비대위는 현재 자영제과점의 실태 파악 및 제휴카드로 인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관의 연계를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설문지는 전국 지회지부에 발송했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자영제과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설문결과는 추후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식지와 전단지 배포, 홈페이지 오픈 등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비대위 활동은 공정위 제소를 계기로 영세한 자영제과점을 위한 불꽃이 활활 타올라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Siba 취재차 방문한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Siba 홍보 외에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의 접촉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휴카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간지와 식품관련 신문에서도 제휴카드에 관한 소식을 만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신호탄으로 본격 투쟁

비대위는 2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문건을 발송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제소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와 연계한 영업활동에 대해 대다수의 소비자들 상대로 한 과도한 할인혜택으로 인해 제과업체의 시장질서가 왜곡된다는 점과 제휴카드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 제휴카드로 인한 통신사들 간의 과다 경쟁, 제과업종 내의 폐업하는 자영업자 양산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완료했다. 비대위 출범 이전부터 실시된 제휴카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8천여 명의 명부 또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공정위 제소 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로 인한 무차별적인 빵 값 할인에서 벗어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이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잇속만 챙겨 주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거듭 밝힐 뜻을 전했다. 공정위 제소를 신호탄으로 언론 플레이를 병행하며 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 업체를 계속적으로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제과인들 중에는 여전히 “철판이라도 들고 나가서 다같이 두들겨야 하지 않냐” 혹은 “대체 비대위는 무슨 일을 하나”며 비대위 활동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쇠는 달귀졌을 때 두들겨라’는 교훈처럼 쇠가 다 달귀졌을 때 온 힘을 응집할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금 마련에 동참해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회원업소들에게 비대위의 활동을 전하고 언론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홈페이지(www.vbakery.or.kr)를 오픈했다. 여론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네티즌’에 주목하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비대위 탁정현 사무국장은 “홈페이지는 비대위의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비대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물론 따끔한 충고 또한 기꺼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

9.24~10.24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9.29	비대위 소식지 발간
10.13~16	Siba 참가 홍보 활동
10.18	비대위 홈페이지오픈
10.24	제휴카드가 자영업과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발송
10.27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예정)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www.vbakery.or.kr](http://www.vbakery.or.kr)

### ■ 투쟁자금 모금현황

10월 24일 현재

전국 지회 · 지부		전국 지회 · 지부	
대구 · 경북	20,270,000	남양주	1,010,000
인천	10,000,000	거제	1,000,000
수원	5,950,000	경산	1,000,000
울산	5,580,000	성동 · 광진	890,000
광주	5,030,000	오산	600,000
성북 (나플레옹 과자점 강병문)	4,372,000	통영	500,000
강남 · 서초	4,030,000	영주	360,000
안산	4,030,000	김천	300,000
부천	3,930,000	동해	210,000
마포	3,530,000	강서	30,000
서부	3,110,000	부산	30,000
마산	3,000,000	대전	30,000
동부	2,900,000	전주	30,000
남부	2,860,000	정읍	30,000
창원	2,380,000	중부	30,000
안양	2,340,000	춘천	30,000
강동 · 송파	2,030,000	<b>개인 및 단체</b>	
양천	2,030,000	과기회(최형일 외)	10,000,000
김해	2,000,000	거암회(권상범 외)	3,000,000
의정부	2,000,000	316과자연구회(김중하 외)	2,000,000
청주	2,000,000	임영진 부회장(주성심당)	1,500,000
포항	2,000,000	경남 선우회	1,000,000
평택 (송탄)	1,780,000 900,000	박찬회부회장님	1,000,000
시흥	1,740,000	21C제우회(이낙근 외)	700,000
군포 · 의왕	1,705,000	박영태(랑콩뜨레과자점)	500,000
도봉	1,460,000	주재근부회장님	500,000
강북	1,430,000	선우출력	300,000
익산	1,130,000	우원석(피에스몽테과자점)	300,000
		울산제과인모임 B.C.P	200,000
		김해민(소속 미확인)	30,000

### 총계

1억3천172만7천 원

※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